

Basic Income: Sufficient Evidence, Now the Politics

기본소득: 충분한 증거가 있다, 이제는 정치다

Guy Standing 가이 스탠딩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명예의장

번역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In 1942, as people started to think about remaking society after the World War, William Beveridge wrote a report for the British government that was to shape the welfare state in Europe. He wrote, 'It is a time for revolutions, not for patching.' What he meant was that it was useless to make minor changes to the old system. A new system was needed. The evidence was clear.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면 사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사고하기 시작한 1942년에 윌리엄 비버리지는 영국 정부를 위한 보고서를 썼는데, 이 보고서가 유럽에서 복지국가의 틀을 만들게 된다. 그는 이렇게 썼다. "지금은 수선할 때가 아니라 혁명을 할 때이다."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은 낡은 체제에 소소한 변화를 가하는 일은 쓸모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체제가 필요했다. 증거는 명확했다.

Today, we are at a similar juncture. The social policies of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are simply outdated. Selective policies for what economists call 'contingency risks', such as a spell of unemployment, an illness or an accident, do not deal with the defining challenges of our age. We live at a time of

rentier capitalism, in which more and more of income being generated goes to those who possess property – physical, financial or intellectual – while less and less goes to those who rely on labour and work for their incomes.

오늘날 우리는 비슷한 시점에 있다. 20세기 후반의 사회 정책은 그야말로 남아버렸다. 일시 실업, 질병, 사고 같이 경제학자들이 “우발적 위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선별적 정책들은 우리 시대의 본질적인 과제를 다루지 못한다. 우리는 지대추구 자본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산출되는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이 물리적, 금융적, 지적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는 반면 소득을 노동과 일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적은 소득만이 흘러간다.

Coupled with this structural inequality, a new class structure has taken shape, with a tiny plutocracy of absurdly rich people facing a growing precariat experiencing chronic insecurities and a steady erosion of social, civil, economic and political rights.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과 함께 새로운 계급 구조가 모습을 갖추었는데, 부조리할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소수의 금권정치가 만성적인 불안전 그리고 사회적, 시민적, 경제적, 정치적 권리의 지속적인 침식을 경험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프레카리아트와 직면하고 있다.

Above all, we are living in an age of chronic *uncertainty*, best portrayed in terms of ‘unknown unknowns’, that is, millions of people, particularly in the precariat, face constant anxiety and stress due to a high probability of being adversely hit by some unanticipated shock, not knowing if they will be able to cope with the consequences or recover from them.

무엇보다 우리는 “무엇을 모르는지 모른다”는 말로 가장 잘 표현되는 만성적인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 특히 프레카리아트 대열에 있는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어떤 충격으로 나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불안과 스트레스에 직면해 있으며, 그 결과에 대응할 수 있는지 거기서 회복될 수 있는지를 모른다.

This is why basic income has moved to the centre of progressive social thinking. Sensible policy makers and commentators are realising that most people are ‘at risk’ and insurance schemes are inappropriate for responding to uncertainty. A healthy society is one in which as many people as possible have basic *security*.

이것이 기본소득이 진보적인 사회사상의 중심부로 들어온 이유이다. 분별 있는 정책 입안자와 논평가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으며, 보험 제도는 불확실성에 대처하기에 적절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있다. 건강한 사회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본 보장을 받는 사회이다.

It is not good enough for governments to say that if you become poor some aid will be provided. We know means-tested social assistance fails to offer a real social safety net. Too many people are excluded, there is always a big poverty trap and there is too much uncertainty about what if anything you will receive.

정부가 만약 당신이 가난해지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자산심사 사회부조가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배제되며, 언제나 커다란 빈곤의 덫이 있으며, 무엇을 받게 될지에 관해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다.

Between August 23 and 25, the 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 will hold its 23rd Congress in Seoul. It is a remarkably opportune moment. Something wonderful has been happening, amounting potentially to a revolution by stealth. Particularly since Covid hit, there has been an acceleration in the number of basic income pilots and experiments around the world.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는 서울에서 대회Congress를 개최한다. 아주 시의적절한 일이다. 놀라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눈에 띄지 않게 혁명으로 이어질 잠재력이 있다. 특히 코로나 충격 이래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파일럿과 실험이 크게 늘어났다.

What is remarkable is that a majority of them have been taking place in a country that until recently was one where there had long been very little support for basic income. That country is the United States. Today, about one hundred experiments are taking place there, or are just completed or about to start.

눈에 띄는 점은 그런 파일럿과 실험 가운데 대다수가 최근까지 기본소득을 거의 지지하지 않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나라는 미국이다. 오늘날 약 100개의 실험이 진행 중이거나, 막 완료되었거나,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

As of early 2023, over 100 cities in 32 States had experiments. In California alone, there are over 40 schemes, giving over 12,000 people basic incomes, costing over \$180 million in public and private funds.¹⁾ The drive has been led by the Mayors for a Guaranteed Income scheme. But those Mayors are not alone. There are over 50 other experiments, in States as different as Arkansas, California, Connecticut, Georgia, New Mexico, New York and Texas.

1) J.Kuang, 'More than 12,000 Californians are getting cash from guaranteed income experiments', CAL Matters, 4 February 2023.

And at least eight schemes are about to start. Several of the schemes are those leaving care homes, similar to a pilot in Wales, where the devolved government is giving a generous basic income to hundreds of young people.

2023년 초를 기준으로 32개 주에서 100개 넘는 도시가 실험을 했다. 캘리포니아에서만 40개 넘는 파일럿이 있는데, 12,000명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며, 1억 8천만 달러가 넘는 공적 자금과 사적 자금이 소요된다.¹⁾ “보장소득을 위한 시장 모임”의 계획이 이 흐름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이 시장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칸소,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조지아, 뉴멕시코 같은 여러 주들에서 50개가 넘는 또 다른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최소한 8개의 파일럿이 실시될 것이다. 이 계획 가운데 몇몇은 보육원을 떠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이는 웨일스의 파일럿과 유사하다. 웨일스에서는 책임을 맡은 정부가 수백 명의 젊은이들에게 관대한 기본소득을 주고 있다.

In addition, there have been pilots in Africa, Asia, Latin America and Europe. Results from evaluations are pouring in. The evidence is clear. It is so clear that we can say with confidence that we have sufficient. The challenge next is political.

덧붙여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유럽에서도 파일럿이 진행되고 있다. 평가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증거는 명백하다. 충분하다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아주 분명하다. 다음 과제는 정치적인 것이다.

What is the evidence? Overwhelmingly, regardless of the design or selected group, a key result is *improved mental and physical health*. This is immensely relevant since in the era of uncertainty there has been rising morbidity and a rising mortality rate in Britain, the USA and in some other countries.²⁾ Pilots in Arkansas and New York, echoing a result found in a big pilot in Manitoba, have reported significant increases in the use of healthcare facilities.

무엇이 증거인가? 가장 강력한 것으로 [실험] 설계나 선택된 집단과 상관없이 핵심적인 결과는 개선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영국, 미국, 기타 몇몇 나라에서 사망률과 사망자 수가 늘어난 이래 이것은 대단히 유의미한 것이다.²⁾ 아칸소와 뉴욕의 파일럿은 캐나다 매니토바 주의 대규모 실험에서 발견된 결과를 다시 보여주듯이 의료시설 이용에서 의미 있는 증가를 보고했다.

Another common finding is improved *housing security*. Property owners are more prepared to rent to people with an assured income, and basic income recipients are more

2)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23/03/09/britain-has-endured-a-decade-of-early-deaths-why>

prepared to take the risk of renting. Projects in Vancouver, California and Oregon, drawing on the success of one in the City of London in 2010, have also shown the homeless moving off the streets.

또 다른 공통된 결과는 개선된 주거 보장이다. 주택 소유자는 보장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임대해 줄 수 있게 되며, 기본소득 수급자는 임대료 부담의 위험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2010년 런던 시 프로젝트가 성공한 것에 기대어 실시한 밴쿠버, 캘리포니아 주, 오리건 주의 프로젝트도 홈리스가 거리를 떠난 것을 보여주었다.

Children are major beneficiaries. A pilot in Washington DC found baby health was improved. One in Mississippi found mothers were spending more on school supplies. Most dramatic of all has been the finding from an ongoing pilot that began in North Carolina in 1996 that children in families receiving basic incomes were on average one year ahead in school by age 16.

아동이 가장 큰 수혜자이다. 워싱턴 디시의 파일럿은 아기의 건강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알려준다. 미시시피주의 파일럿에서는 엄마들이 학용품에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든 결과 가운데 가장 극적인 것은 1996년에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시작되어 여전히 진행 중인 파일럿의 결과인데, 기본소득을 받는 가족 내의 아동이 16세까지 학교에서 평균적으로 [그렇지 않는 아동에 비해] 1년을 앞서나갔다.

Schemes have shown that many recipients use their basic income to reduce life-constraining debt. In Austin, Texas, half the recipients did so, a majority by 75% or more.³⁾ Recipients also reduced debt in a scheme in San Antonio.

파일럿들은 많은 수급자가 기본소득을 삶을 짓누르는 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텍사스 주 오스틴에서는 절반의 수급자가 그렇게 했는데, 75퍼센트나 그 이상 부채를 줄였다.³⁾ 샌안토니오의 파일럿에서도 수급자가 부채를 줄였다.

There has been anecdotal evidence that individual basic income has enabled some women to walk out of abusive relationships and women in general to have a greater sense of financial independence.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으로 인해 일부 여성이 학대받는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여성 일반은 더 큰 재정적 독립성을 느끼게 되었다는 일화적인 증거가 있다.

3) UpTogether, July 2022. <https://connect.uptogether.org/central-tx/housing-stability.html>

Finally, contrary to widespread prejudice, there is considerable evidence that basic income results in *more work, not less*. Part of the reason is that recipients have more confidence and energy. Partly it is because there is no poverty trap and precarity trap; people retain their basic income if they increase their labour and work.

끝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편견과는 반대로 기본소득이 일을 더 적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하게 한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수급자가 확신과 에너지를 좀 더 가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빈곤의 덫과 불안정성(precarity)의 덫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노동과 일을 늘리더라도 기본소득을 유지한다.

In a big experiment in Ontario, although the provincial government tried to suppress the evaluation evidence, the data showed that recipients had continued to labour and many had increased it.⁴⁾ But perhaps the most famous pilot, in terms of media coverage, was one conducted by the Government of Finland between 2017 and 2019, under which 2,000 randomly selected unemployed received 560 euros a month.

온타리오 주의 대규모 실험에서는 주 정부가 평가 증거들을 은폐하려 했지만 수급자들이 계속해서 노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늘렸다는 데이터가 있다.⁴⁾ 그러나 미디어가 다른 점에서 가장 유명한 파일럿은 2017년에서 2019년까지 핀란드 정부가 실시한 것으로서, 임의로 선별된 2천 명의 실업자에게 매달 560유로를 지급한 일이다.

Typifying the prejudice of the mainstream media, the Guardian and BBC announced in mid-2018 that it had been abandoned as a failure. This was false. It began on the day planned and ended precisely two years later, as planned at the outset. Rigorous evaluation showed that the unemployed did not reduce their economic activity and experienced an improvement in mental and physical health.⁵⁾ Even though a new centre-right government had introduced an ‘activation’ scheme to pressure the unemployed to take jobs, at the end of the pilot the employment rate of the basic income recipients, who had not been subject to that pressure, was no lower than for those threatened with sanctions.

주류 미디어의 편견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가디언》과 BBC는 2018년 중반에 이 파일럿이 실패로 돌아가 폐기되었다고 보도했다. 이것은 거짓이었다. 이 파일럿은 계획된 날짜에 시작되었고, 처음에 계획한 대로 정확하게 2년 후에 종료되었다. 엄격한 평가를 보면 실업자들은 경제 활동을 줄이지 않

4) D.Takema, ‘People kept working, became healthier while on basic income support’, CBC News, 5 March 2020. <https://www.cbc.ca/news/canada/hamilton/basic-income-mcmaster-report-1.5485729>

5) O.Kangas et al (eds.), *Experimenting with Unconditional Basic Income* (Cheltenham, Edward Elgar, 2021).

있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의 개선을 경험했다.⁵⁾ 새로운 중도우파 정부가 실업자가 일자리를 가지도록 압력을 가하는 “활성화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파일럿 종료 시점에 이런 압력을 받지 않았던 기본소득 수급자의 실업률은 제재의 위협을 받은 사람들의 실업률보다 더 높지 않았다.

There is not space here to deal with other findings. But in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pilots have found increased work, improved nutrition, health, schooling and sanitation, and an emancipatory effect among women, minorities and those with disabilities.

여기서 다른 결과들을 다룰 여유는 없지만 개발도상국에서도 기본소득 파일럿은 증대된 일, 개선된 영양, 건강, 학교 교육, 위생 그리고 여성, 소수자, 장애인들에게 해방적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 준다.

In short, if governments were genuine in saying they will apply ‘evidence-based policy’, we would have a basic income system already. But the political Canutes are just holding back the waves. It is this that demands our campaigning attention now. Most politicians are not real leaders. They follow what they think is the public mood or what they think will improve their chances of being elected. They tend to be opportunistic rather than principled.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ey are cowards or corrupt or amoral. But too many have what might be called *spaghetti backbones*, that is, weak moral abilities.

요컨대 정부가 “증거 기반 정책”을 채택하겠다는 데 진심이라면 우리는 이미 기본소득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호언장담하는 정치가들은 그저 물결을 막으려 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캠페인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런 점이다. 대부분의 정치가는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중의 분위기 혹은 재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따른다. 그들은 원칙적이라기보다는 기회주의적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들이 반드시 겁쟁이라거나 부패했다거나 부도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너무 많은 정치가들이 스파게티 등뼈라고 부르는 것, 즉 취약한 도덕 능력을 가지고 있다.

Some are definitely not like that. And here they should take heart. Opinion polls in many countries are showing that majorities of adults are in favour of basic income. And whereas ten or twenty years ago, most people did not know what ‘basic income’ meant, now very many people do know.

일부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 이들은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많은 나라의 여론 조사를 보면 대다수 성인이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모르던 10년 전 혹은 20년 전에 비해 이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알고 있다.

What is holding us back is that still too many commentators do not really know. Prejudice still comes in many newspaper articles and in hasty comment on social media. But many more people are in a position to counter that prejudice. In particular, young educated members of the precariat are speaking up. Many outside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inside the country, are able to point to Gyeonggi Province, where 125,000 young people are receiving basic incomes.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은 여전히 너무나 많은 논평자들이 실제로 모른다는 것이다. 많은 신문 기사와 소셜 미디어의 경솔한 논평에는 편견이 여전하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편견에 맞설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프리카리아트 대열에 있는 교육받은 젊은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민국 안팎의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를 거론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125,000명의 젊은이들이 기본소득을 받고 있다.

Let me end this article with a prediction. There could be a domino effect. When just a very few countries introduce a basic income, many more will quickly follow. As shown elsewhere, and as will be summarised in a speech in the BIEN Congress in August, the optimum way of affording a basic income system will be by creating Commons Capital Funds.⁶⁾

예측으로 이 글을 끝내려 한다. 도미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몇몇 나라만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더 많은 나라들이 재빨리 뒤를 이을 것이다. 다른 곳에서 이미 밝혔고, 8월에 있을 BIEN 대회 발표에서 간추려서 말하겠지만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는 최적의 방법은 공유지 자본 기금 Commons Capital Funds을 만드는 것이다.⁶⁾

Today, two very different countries have announced they will be introducing a basic income in the very near future – Barbados and South Africa. Perhaps they will be the first dominoes to fall. The health and happiness of people and the political stability of their countries will be dramatically improved. Let us build the momentum and a civilising future.

오늘날 아주 성격이 다른 두 나라인 바베이도스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아주 가까운 장래에 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마 이 두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도미노의 첫 번째 도미노가 될 것이다. 이 나라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정치적 안정성은 극적으로 나아질 것이다. 이를 위한 운동 그리고 문명화된 미래를 만들어내자.

6) G.Standing, The Blue Commons: Rescuing the Economy of the Sea (London, Pelican, 2023).